전주기상지청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8. 4.(화) 14:00 배포 2026. 8. 4.(화) 14:00

전주기상지청, 폭염 극복 '도민 안전 총력전'

- 전주시 이동 노동자 쉼터 전주시와 합동 방문, 이동 근로자 행동수칙 및 휴식 준수 당부
- 특별기상관측, 취약계층 맞춤형 폭염정보, 외국인 다국어 서비스 등 폭염 사각지대 해소 앞장

□ 전주기상지청(신언성 지청장)은 **4일(화), 폭염중대경보 발효**에 따라 **전주시(일자리정책과)와** 함께 **전주시 이동 노동자 쉼터를 긴급 방문했다.**

□ 신 지청장은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와 휴식 환경을 직접 살피며, **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 활동 외 모든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**하고 **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당부**했다.

□ 아울러,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**전주한옥마을 일원에 최첨단 '기상관측차량'을 투입해 특별기상관측을 실시**한다. 기상관측 차량에 탑재된 전문 장비로 기온·체감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지역별 폭염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.

이렇게 확보된 **관측자료는 지방정부, 방재 관계기관 등에 신속히 제공**되며, 각 기관이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**폭염 대응 정책을 수립·운영하는 데 핵심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**될 예정이다.

□ 특히, 전주기상지청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의 문턱을 낮췄다. 전북 14개 시·군 보건소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**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및 질환자에게 '맞춤형 폭염 영향예보'를 지속적으로 전달**하고 있으며, **방재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도 폭염 현황과 전망을 신속·정확하게 공유**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돕고 있다.

□ 또한, 언어 장벽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전북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을 위해 (재)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손을 잡았다. **5개국 언어*로 번역된 폭염 안전 정보를 SNS로 맞춤 제공**하여, **외국인도 기상정보에서 소외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폭염 정보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**했다.

*다국어 5개국: 베트남어, 미얀마어, 몽골어, 캄보디아어, 영어

□ 신언성 지청장은 **"폭염중대경보는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가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만큼, 전주기상지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민 안전을 지켜내야 할 때"** 라며,

"폭염이 기세를 꺾을 때까지 방재 관계기관과 24시간 밀착 협력체계를 유지하고, 단 한 분의 도민도 더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알기 쉬운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 고 강조했다.

□ 붙임: 폭염중대경보 발표지역 현장 활동 사진

담당 부서	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	책임자	과 장 이준희 (063-249-3202)
		담당자	주무관 마재준 (063-249-324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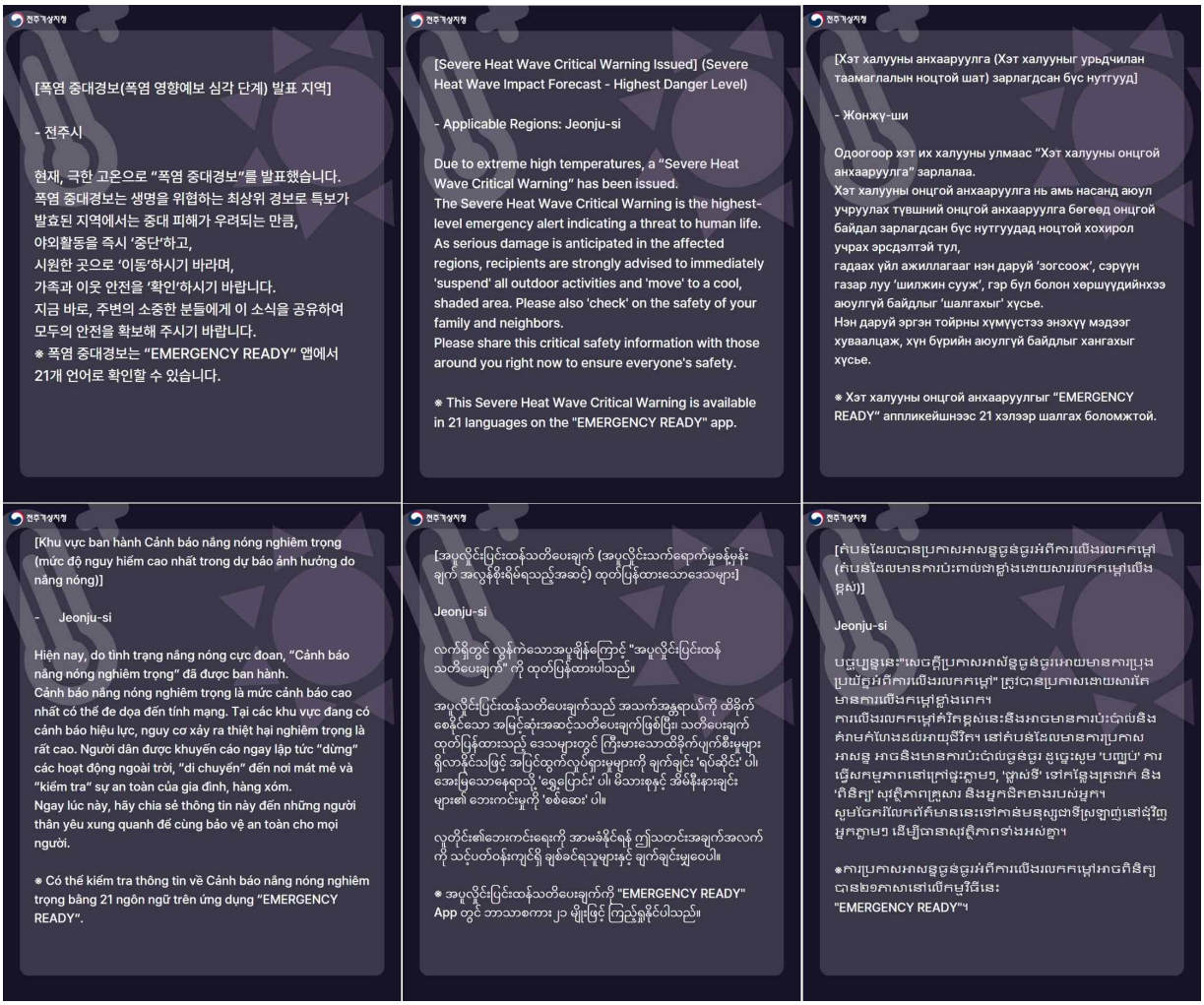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폭염중대경보 발표지역 현장 활동 사진**

생수 나눔 캠페인

전주시 이동 노동자 생수 전달

기상관측차량 전주한옥마을 특별관측



폭염중대경보 다국어 SNS 지원